

No.20161123-001

제목: 호쿠토 -어느 살인자의 회심-

저자: 이시다 이라

페이지수: 586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4월 17일



<내용소개>

한 청년의 불우한 인생과 운명을 통해, 인간의 고독함과 사회적 문제를 다루다

2017년 3월 드라마 방영 예정! (WOWOW TV)

하시즈메 호쿠토는 누군가에게 안겨본 기억이 없었다.

사람의 몸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모른다.

작가는 소설의 맨 처음 두 문장만으로 주인공 '호쿠토'가 살아 온 삶을 단적으로 제시한다. 호쿠토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 받았다. 모든 공포의 근원이었던 친부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친모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호쿠토에게 풀었다. 이들은 호쿠토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며 깊은 상처를 주고 내킬 때마다 폭력을 휘두른다. 사랑을 받지 못한 호쿠토는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어두운 아이로 자라난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에게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 아동복지상담소를 통해 보호시설로 들어간다. 그 곳에서 양어머니 '콘도 아야코'를 만나며 호쿠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아야코는 남편과 사별하고 세 명의 수양자식을 키워낸 60대 여성으로, 호쿠토에게 놀라울 만큼의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일상을 선사한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야코는 간암 진단을 받는다. 병문안을 온 친구에게서 말기 암에 효능이 있다는 고가의 명약 '파동수'를 소개받고는 열심히 구입해 복용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난다. 호쿠토는 그것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라는 점을 뒤늦게 알았지만 실의에 빠진 아야코에게 끝까지 밝히지 못한다.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야코를 위해 호쿠토는 사기주모자인 '이쿠타'를 죽이려 결심한다.

오늘날의 사람들과 사회상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다양한 장르로 풀어내 호평 받아온 '이시다 이라'는 이 작품에서 처음 사랑을 깨달았지만 너무도 빨리 잃게 된 한 인간의 좌절을 이야기한다. 동시에 아동학대와 양부모 제도 등 우리사회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문제들을 다룬다. 호쿠토는 이쿠타를 죽이는 데에는 실패하고 무고한 두 여성을 해친 죄로 수감되는데, 체포 직후부터 1년 뒤 재판에 임하는 부분이 클라이막스다. 작가는 주인공의 불행한 과

거를 빌미로 독자들이 죄의 무거움을 덜어주길 원하지 않는다. 어차피 호쿠토에게 아야코 없는 고독한 세상은 두려움 자체, 살인은 형태를 바꾼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500페이지가 훌쩍 넘는 장편 소설은 시종일관 호쿠토의 1인칭 시점에서, 학대와 살인 같은 자극적인 부분까지도 너무나 담담하게 그려낸다. 이 점이 오히려 독자들이 하여금 주인공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도와주고 강한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일본 WOWOW에서 드라마화 하여 2017년 3월 방영 예정이다.

<저자소개>

이시다 이라

1960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1997년 <이케부쿠로 웨스트 게이트 파크>로 올 요미모노 추리소설신인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2003년 《4TEEN》으로 제129회 나오키 상, 2006년 《잠들지 않는 진주》로 제13회 시마세이 연애문학상, 2013년 《호쿠토 - 어느 살인자의 회심》으로 제8회 중앙공론문예상을 받았다. 이외에 《뼈의 소리》, 《빅 머니》, 《슬로 굿바이》, 《1파운드의 슬픔》, 《사랑이 없는 방》 등의 작품이 있다.

No.20161123-002

제목: 꿀벌과 천둥

저자: 온다 리쿠

페이지수: 507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9월 23일



<내용소개>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배경으로 인간의 재능과 열정, 음악을 산뜻하게 그려낸 청춘 소설

유연하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와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낸 작가 온다 리쿠의 신간이다. 이번에는 음악과 경쟁, 인간의 재능과 열정을 주제로 한 장편 소설을 발표했다.

3년에 한 번 개최되는 <요시에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신인 피아니스트의 등용문이다. 이 곳을 제패한 자는 세계 최고인 S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다는 징크스 덕분에 음악계가 주목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이번 제6회 요시에 콩쿠르를 앞두고 파리에서 진행된 오디션 심사과정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난다. 돌연 등장한 '카시마 진'이라는 16세 소년 때문이다. 어느 대회에도 참가한 이력이 없는 무명 연주자가 그 해 세상을 떠난 천재음악가 '유우지 폰 호프만'에게 가르침을 받아왔다고 추천장을 제출한다. 심사위원들은 호프만의 말처럼 음악계에 'GIFT'와도 같은 진의 파격적인 연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와 콩쿠르에서 경쟁할 상대는 줄리어드 음악원 출신의 엘리트에 스타성까지 지닌 19세 청년 '마사루 C. 레비 아나톨'이다. 페루인 어머니를 둔 일본계 3세로서 완벽한 연주기술과 음악성으로 우승후보로 점쳐진다. 여기에 일찍이 천재소녀로 인정받으며 국내외 주니어 콩쿠르를 휩쓸고 음반도 냈지만 모친이 사망하며 피아노를 치지 않았던 '에이덴 아야', 음대 출신 샐러리맨으로서 클래식은 귀족적인 취미라는 인식에 반발하는 '고지마 아카시' 등 여러 천재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반복되는 경쟁을 통해 자신과 싸워나간다.

제목의 키워드는 모두 진과 연관되어 있다. 양봉가인 아버지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피아노라고는 가져본 적도 없던 소년이, 꿀벌로 상징되는 자연계의 음과 리듬을 통해 자기의 음악적 재능을 깨닫는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은 본능적인 재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그는 이야기 속에서 한 차례 큰 변화를 겪는다. 제3차 예선을 앞두고 겨울 비가 내리는 스산한 거리를 헤매던 중, 저 멀리서 천둥소리가 울려오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스승 호프만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며 고독과 방향을 거쳐 각성하는 순간이다.

'타고난 음악 천재 vs. 노력형 천재'의 이차원적 대립구도로 번지기 쉬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예상을 벗어나는 전개와 산뜻한 결말을 선사한다. 콩쿠르의 무대 뒤와 심사 기준, 피아니스트의 긴장감과 연주전략 같은 소재를 경선 진행과 엮어 흥미롭게 묘사한다. 독자들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됨과 더불어, 더 높은 곳을 향해 단련해나가는 천재들을 통해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엔트리 / 제1차 예선 / 제2차 예선 / 제3차 예선 / 본선

<저자소개>

온다 리쿠

1964년 미야기 현에서 태어났다. 1992년 《여섯 번째 사요코》로 데뷔했으며 2005년 《밤의 피크닉》으로 제26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신인상 및 제2회 서점대상, 2006년 《유지니아》로 제59회 일본추리작가협회상, 2007년 《호텔 정원에서 생긴 일》로 제20회 야마모토 슈고로 상을 받았다. 그 외 다수의 작품이 있다.

No.20161123-003

제목: 우리 아이와 스마트폰: 이해와 지도를 위한 아이들의 스마트폰 세상
파헤치기

저자: 이시카와 유우키

페이지수: 204

장르: 사회

출간일: 2016년 09월 25일



<내용소개>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세상'을 낚낚이 파헤친다

중장년층에게 스마트폰은 어느 날 나타난 '극도로 발달한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이겠지만,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레 접한 평범한 물건 중 하나다. 떼쓰고 보챌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며 큰 아이들은 학습은 물론 취미활동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 상대와 마주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텍스트 위주의 반응을 주고받는 구조에 익숙하며, 개인이 정보의 송신자 겸 수신자가 되는 세상에 깊이 관여하며 성장했다.

이 책은 어른들과 아이들 양측의 입장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를 생각해 본다. 보통 인터넷과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 아이 개인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일까?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게임회사의 상술이며, 컴퓨터를 구입해 인터넷을 연결해주거나 스마트폰을 사주는 사람은 부모다. 어른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며 본론으로 들어간다. 무엇이든 간단하고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뷔페에 비유하며, 문장보다 이모티콘 이미지로 표현하기가 선호되는 문화 특성 등을 제시한다. 디지털 수업과 놀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대의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본다. 이어서 메신저를 이용한 괴롭힘이나 개인정보 유출,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셀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 등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특히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스마트폰이 중심인 세계에서는 사용자의 행동이 곧바로 금전적 가치로 연결되기 쉽다는 것이다. 실사용자인 아이들도, 아이에게 사용을 일임한 부모들도 이 점을 깨닫거나 실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양육자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한다. 저자는 사용 시간을 수치나 돈으로 환산해 시각화 하기, SNS트러블을 방지하는 스킬 등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앞으로 아이들이 인터넷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며 마무

리 한다.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과 스마트폰의 등장이라는 흐름 속에서, 지식과 사회 경험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쉽게 휩쓸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문물 속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른들이 알아야 할 정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용한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스마트폰이 바꾸는 아이의 세계

제 2장: 아이와 인터넷

제 3장: 심각해지는 인터넷 트러블

제 4장: 오늘부터 당장 도움 되는 지식과 대책

제 5장: 인터넷 사회의 미래와 아이들의 앞날

<저자소개>

이시카와 유우키

저널리스트. 1961 년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났다. 가족·교육 문제, 아동학대, 청소년 인터넷 이용 등을 주제로 취재해 왔다. 풍부한 취재실적과 현장감각을 바탕으로 출판뿐 아니라 신문연재, TV 출연,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르포: 거주지불명아동 - 사라진 아이들》, 《르포: 아이의 무연사회》, 《마음이 강한 아이를 키운다 - 인터넷 시대의 부모자녀 관계》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공식 홈페이지: <http://ishikawa-yuki.com/>)

No.20161123-004

제목: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예측입문

저자: 나카하라 케이스케

페이지수: 232

장르: 경영, 경제

출간일: 2016년 09월 16일



<내용소개>

작은 변화에서 큰 흐름을 찾아내는 '경제 예측 능력' 인재로 나아가는 첫 걸음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장기 이익은 0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득과 실은 모두 단기적인 어느 시점마다 발생하는 것이며, 어느 경제 객체가 이익을 보면 또 다른 경제 객체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이다. 인간은 단기를 사는 존재이므로 각자의 경제활동에서 언제나 이익을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세계적 호황이 겹치며 짧은 호시절을 누리다가 90년대 말 찾아온 IMF 사태에 무너졌다. 다수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몇몇 대기업도 허무하게 파산했다. 다행히도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후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아졌으며 온 세계가 장기 불황에 들어섰다. 단기, 장기 경제예측을 정확히 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짜 나가는 일은 성공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다.

이 책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예측력을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현실의 흐름을 포착하지 못하는 기업은 실패에 직면하게 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해도 회생하기 어려워진다.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갖춘 '데이터 과학자'류의 인재가 비즈니스 전반에서 요구되고 있지만 해당 소양을 갖춘 인재가 드물다.

날카로운 경제 예측 능력으로 정평이 난 저자는, 대체 '경제 예측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요구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왜 일본 기업은 실패를 되풀이 하고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하는지, 글로벌 기업들이 경영과 투자에서 실패를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고 각각의 처방전을 제시하며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낸다. 금융기관의 전망을 그대로 받아 믿어서는 안 되며, 경영자가 지녀야 하는 경제 예측 능력의 수준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의 신뢰도에 의문을 갖고,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부 정책이나 트렌드에 가볍게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세하게 해설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경제 예측'을 마스터 할 수 있는 3가지 시점을 소개한다. 첫째,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둘째,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 셋째, 자연과학적인 발상을 활용한다. 정작 현업에서는 망각하기 쉬운 기본 원칙들을 몸에 익혀 보다 뛰어난 인재로 나아가갈 수 있는 방법을 다루었다.

큰 위기는 가장 효과적인 전환점이기도 하다. 사소한 변화에서 큰 흐름을 잡아내는 '경제 예측 능력'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 절호의 기회를 만들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보도록 하자. 이 책이 그 첫 걸음을 뚫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경제예측이 안 되면 비즈니스도 절대 잘 풀릴 수 없다

제 2장: 경제예측을 못 하는 씽크탱크를 신용하지 말라

제 3장: 경제학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4장: <경제예측>은 3개 시점에서 마스터 할 수 있다

<저자소개>

나카하라 케이스케

경영·금융 컨설팅 회사 <Asset Best Partners>의 경영 어드바이저 및 경제 애널리스트로서 활동 중이다. <종합과학연구기구>의 특임연구원도 겸하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언과 제안을 하는 한편 집필 및 세미나를 통해 경영교육·경제교육의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경제와 경영뿐 아니라 역사, 철학, 자연과학 등 폭넓은 시점에서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정확도 높은 예측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저서로는 《2025년의 세계예측》, 《세일 혁명 후의 세계세력도》, 《석유와 돈, 신 세계패권도》, 《경제 예측 뇌》, 《나카하라 케이스케의 경제는 이렇게 움직인다》, 《지금부터 일본에서 일어날 일》, 《지금부터 세계에서 일어날 일》, 《미래 예측의 프로가 가르쳐 주는 '본질을 가려내는 공부법'》등이 있다.

No. 20161123-005

제목: 나이 들의 파도에서는 평영으로 헤쳐가세요

저자: 무레 요코

페이지수: 220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6년 08월 05일



<내용소개>

인기 소설가 '무레 요코'가 유쾌하게 전하는, 인생의 시야를 넓혀 줄 에세이

에세이의 가장 큰 매력은, 타인의 삶을 깊고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보고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망하는 예술가, 존경하는 학자, 뛰어난 업적을 세운 경영자나 정치가가, 미리 그 길을 걸어가 본 인생 선배들이 스스로를 허심탄회하게 돌아보는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때로는 휴일 없는 육아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초보 엄마,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무작정 세계 여행을 떠나거나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찾아 나선 청년 등 비교적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를 주기로 한다.

이 책은 《카모메 식당》, 《세 평의 행복, 연꽃 빌라》, 《빵과 수프, 고양이와 함께 하기 좋은 날》 등의 작품으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은 소설가 무레 요코가 전하는 솔직 담백한 에세이다. 포근하고 경쾌한 문장으로 담아내던 작품이 여지없이 발휘된다. 2013년 10월 처음 출간되었다가 이번에 문고판으로 펴낸 책이며, 60세를 앞둔 한 여성으로서 평범하게 하루 하루를 보내던 중 마주한 소소한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한 단상을 시니컬하면서도 코믹하게 담아 냈다.

배달 받은 상자에 쓰여 있던 글씨 '구두(クツ)'를 전혀 다른 의미의 '젠장(クソ)'으로 잘못 읽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던 자기 혐오의 순간, '1개를 사면 3개를 버리기'를 실천하여 미니멀리즘에 도전했던 것, 일본여자축구팀의 경기를 보다가 상대 팀에게 설사나 하라는 기도를 퍼부었던 이야기, 어울리는 직업 점을 보러 갔다가 간호사는 안 된다며 금지 당한 이야기, 나이를 먹어 몸이 굳은 고양이를 힘내라며 격려하는 이야기 등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초등학교 수험 면접 때 입을 양복에 50만엔이나 쏟아 부은 모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아 골치 아파하는 친구들 등 주변인물들의 에피소드 역시 범상치 않다. 앞에 두고 직접 말할 수 없었던 본심을 글자로 표현해, 독자들에게 직접 보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을 안겨 준다.

첫 출간 당시 58세였던 무레 요코는 이제 60세가 넘었다. 그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음만은 가능한 평온하게, 제목처럼 평영을 하듯이 자신만의 페이스로 나아가리라 다짐한다. 세월이 저항하며 괜한 힘을 빼기 보다는 나이에 어울리는 모습과 연륜을 갖추자는 것인데, 요즘 안

티에이징 트렌드에 부합하는 메시지다. 유쾌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에세이를 통해 공감하며 웃고, 인생의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바른 할머니 / 여기도 저기도 뭔가 이상 /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 자기혐오의 날들 / 책과의 거리 / 자기 몸도 다른 이에게 맡겨라? / 산책의 우연 등

<저자소개>

무레 요코

1954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니혼대학 예술학부를 졸업하고 몇 가지 일을 거쳐 잡지사에 입사, 1984년 <오전 0시의 현미빵>으로 데뷔하였다. 저서로는 《빵과 수프, 고양이와 함께 하기 좋은 날》, 《여유로운 생활》, 《구깃구깃 육체백과》, 《일하지 않습니다-연꽃빌라 이야기》 등이 있다.

No.20161123-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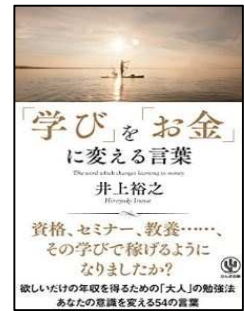
제목: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말

저자: 이노우에 히로유키

페이지수: 224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0월 19일



<내용소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배움'과 '돈'을 이어주는 <말>이 당신을 기다린다

인간은 평생 배우며 살아간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또는 책과 교육기관을 통해 삶에 필요한 것을 배운다. 입시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학습 동기를 잃는 경우가 많다. 고교 시절에도 시험용 공부가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대학과 직장을 거치면서 아예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실력 계발 쪽으로 좁혀진다. 조금 더 높은 점수가 조금 더 높은 수입과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베스트셀러였던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에 이어 이 타이틀에서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말'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배움이란 앞서 말한 점수를 위한 공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돈도 현실에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며 사회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다. 그것들이 충족되면 물질적인 대가는 자연히 따라온다. 자신의 인간성과 인격을 높이면 일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성과의 질이 향상되고 인간관계도 더욱 원만해질 것이 당연하다. 결국 자신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고, 일에 대한 보수와 이익이 더 높아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오직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배움에서 벗어난 배움이야말로 돈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배움과 돈의 관계를 설명하며 심신을 여유롭고 풍족하게 만들어줄 총 54개의 '말'을 제시한다. 배움이 돈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기본 사고방식, 배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들,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을 다스리며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는 방법과 타인을 자기에게 우호적인 지지자로 만들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차례로 해설한다. 본문 마지막 장은 잠재의식을 사용해 배움과 돈의 관계를 최상으로 움직여 나가는 비결을 담고 있다. 잠재의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수단은 '말'이며, 의도적으로 어떤 말을 계속 걸면 소망이 이뤄진다는 내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의식을 습관화하는 확인(Affirmations)을 부록처럼 함께 수록하였다. 모든 항목은 주요 말(키워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1~4페이지 분량의 내용, 한 문장 요약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앞으로는 스스로 보고 듣고 내뱉는 말에 더욱 신경 써보도록 하자. 그 말이 머리 속에 입력 되고 잠재의식까지 도달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망이 이루어지고 배움이 돈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당신의 '행동'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목차소개>

- 제 1장: 배움을 확실하게 돈으로 이어주는 말
- 제 2장: 배움을 자기의 일부로 만드는 말
- 제 3장: 돈을 벌고 싶다. 이 치솟는 욕망을 실현하는 말
- 제 4장: 만나는 사람을 차례차례 서포터로 만드는 말
- 제 5장: 귀중한 자원 '시간'을 최대한 살리는 말
- 제 6장: 잠재의식을 사용함으로써 최고의 인생을 실현하는 말
- 확언 모음(Affirmations)

<저자소개>

이노우에 히로유키

치의학 박사, 경영학 박사, 코치, 테라피스트, 경영컨설턴트, 의료법인 사단 이노우에 치과의원 이사장. 시마네대학 의학부 임상교수, 도쿄치과대학 비상근강사, 홋카이도의료대학 비상근강사, 부쿠레슈티대학 의학부 객원 강사, 인디애나대학 치의학부 객원 강사, 뉴욕대학 치의학부 임플란트 프로그램 리더, ICOI 국제 임플란트 학회 지도의를 맡고 있다. 또한 일본 컨설턴트 협회 인정 파트너 컨설턴트, 세계 최초 조셉 머피 인스티튜트 공인 그랜드 마스터다.

1963 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다. 도쿄치과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뉴욕대학을 비롯하여 펜실베이니아대학, 하버드대학, 예테보리대학 등 해외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배웠다. 6 만명 이상 카운셀링 경험을 살린, 의사로서 세세한 대화를 중시하는 치료방침도 국내외에서 널리 지지 받고 있다. 본업과 더불어 세계의 다양한 자기계발·경영 프로그램 등을 배워가고 있다. 현재는 세미나 강사로서도 활동 중이며 1000 명 규모의 강연도 다수 성공 시켰다. 주요 저서로는 베스트셀러였던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너무 애쓰지 말아요》 등이 있다.

* 공식 사이트: <http://inouehiroyuki.com/>

No.20161123-007

제목: 논어와 주판과 나

저자: 아사쿠라 유스케

페이지수: 388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6년 10월 07일



<내용소개>

후회를 최소화하는 '조직 경영' &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사란 이제 일상이나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라는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음식물이나 생필품도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다. 지금 회사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

이 책은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유연한 경영론을 주제로 삼았다. 저자는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지만 영세 스타트업과 상장기업 대표이사직까지 두루 거쳤으며 컨설턴트 경력도 갖고 있는 베테랑 리더다. 경영자인 동시에 창업 투자가로서 활약 중인 그가 여러 위치에서 얻은 깨달음, 경영 및 회사에 대한 고찰을 정리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회사는 곧 개인과 같다. 자유 경제 체제 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생존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의 방식이나 구조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현상유지란 곧 쇠퇴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동적인 환경에 대응하려면 항상 자기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저자는 경영자의 유형을 분류해보고 '경영자'라는 직업을 가진 이에게 필요한 자세와 리더십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집단이나 기업이 빠지기 쉬운 자기 모순이라는 함정에 대해 설명한다. 기업은 그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

점점 격해지는 창업과 스타트업의 환경변화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배울 점, 순조로움과 고난이 반복되는 자금조달흐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등을 짚어본다. 이어서 성숙기와 쇠퇴기를 맞이한 기업에 효과적인 처방은 무엇이며, 기존 기업이 갖고 있는 이노베이션에 대한 갈망은 어떤 것인지 짚어본다. 기업활동과 처해있는 환경, 기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행동 방식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회사의 외부요인/내부요인을 고르게 고려하는 점이 눈에 띈다. 수급관계나 경쟁환경, 업계 동향 등 회사 바깥에서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외부 정보와 내부인만 알 수 있는 내부 문제를 종합해야 더 정확한 현황 진단과 개선책 도출이 가능하다는 코멘트도 해준다.

본문의 대부분은 회사라는 이름의 조직을 대상으로 하지만, 마지막에는 회사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초점을 옮겨 인생의 선택원칙과 회사 선택 기준 등을 이야기한다.

본래 2015년 News Picks에 연재된 인기 원고를 수정하여 책으로 펴낸 것이다. 실무 경험과 전략적 사고력을 겸비한 저자가 경영과 조직, 사업의 방식, 자본시장과의 관계, 개인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고찰하였다. 자본사회에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자기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떨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직업으로서의 경영자와 리더십
 - 제 2장: 집단·기업이 빠지는 자기모순
 - 제 3장: 창업·스타트업의 환경 변화
 - 제 4장: 성숙·쇠퇴기를 맞이한 기업의 처방전
 - 제 5장: 기존 기업의 이노베이션에 대한 갈망
 - 제 6장: 자본시장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 제 7장: 독립하기 위한 원칙과 마음가짐
- 북가이드

<저자소개>

아사쿠라 유스케

1982년 효고 현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후에 기수를 목표로 호주에 유학을 떠났지만 신체 성장에 따른 감량으로 괴로워하다 단념하고 귀국하였다. 경주마 육성 업무를 하다가 전문학교를 거쳐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맥킨지 앤드 컴퍼니를 거쳐 대학 재학 중에 설립한 스타트업, 'Naked Technology'에 복귀해 대표로 취임하였다. 동 사의 매각처인 'Mixi'에 입사 후, 2013년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해 업적 회복을 기회로 퇴임하였다. 2014년부터 스탠포드대학 객원 연구원, 여러 기업의 이사직, 어드바이저를 맡는 한편 창업 경험자로서 스타트업 투자 활동(Tokyo Founders Fund)도 개시하였다.

No.20161123-008

제목: 지저분함도 안 좋은 기분도, '쌓아두지 않는' 생활

저자: 타카기 에미

페이지수: 207

장르: 라이프스타일

출간일: 2016년 11월 04일



<내용소개>

지저분함, 집안일,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는 생활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전한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시간 부족에 시달린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육아 및 다른 가족들을 챙기느라 이미 지쳐버린 상태에서는 청소나 세탁 같은 것은 주말로 미뤄버리고, 저녁식사를 하고 난 주방 정리도 내일 아침으로 미루고 싶은 유혹에 쉽게 굴복한다. 대망의 주말에 마주하게 되는 점점 쌓여 산더미가 된 각종 집안일들이다.

열정적인 요리 수업으로 인기를 얻으며 관련 서적들을 펴낸 저자가, 이번에는 이런 바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사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집안 일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동안 지저분함과 초조함도 같이 쌓이게 된다. 실체 없는 불안에 쫓기는 기분으로는 당연히 가족들과 즐겁게 외출하기도 어렵고, 자신을 기다리는 집안일에 신경이 쓰이기만 할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타개할 수 있는 비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본문은 총 6개 장으로 분류되어 있다. 1장에서는 '쌓아두지 않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집필한 목적과 변화시켜야 하는 사고방식, 기본 마음가짐 등을 이야기한다. 어차피 지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선 박스'에 넣어두고 당장 처리 가능한 중요한 일들부터 해결해 나간다. 쓸데 없이 신경 쓰고 불안해하느라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일에만 집중해 빨리 끝낼 수 있다.

2장은 씻기 편이다. 목욕과 세탁을 병행하기, 행주걸이와 싱크대 삼각코너, 대부분의 목욕 수건은 없애는 편이 더 쾌적함을 알려준다.

3장 청소 편에서는 타이머 활용 방법, 리필 병을 이용해 공간을 절약하는 방법 등이 등장하고 4장 물건 배치 편에는 어떤 장소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미리 놓아둘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현관에 외출 시 가져나갈 손수건을 놓아두거나, 화장실에 속옷을 놓아두면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5장 몸단장 편은 바쁜 아침 시간을 아껴 쓰는 패션 코디, 가방에 필수품 빠르게 챙겨 가져 가기, 아침식사 준비하며 마스크팩 하기 같은 팁이 있다. 마지막 장에는 효율과 위생을 모두 잡는 팁, 식기는 씻어서 물기를 닦아 정리하기 등의 팁이 있다.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미뤄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는 책이다. 공개된 비결들은 우선 3주 동안 성실히 이행하며, 습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없어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모이는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1. 쌓아두지 않는 매일 편
2. 씻기 편
3. 청소 편
4. 물건 배치 편
5. 몸단장 편
6. 주방 편

쌓아두지 않기 위한 숨은 기술 편
도시락 반찬 냉동

<저자소개>

타카기 에미

열혈 요리학원 주관. 대학 졸업 후, 여러 조리실에서 수업을 받고 에콜츠지도쿄 이탈리아 · 프랑스 마스터 컬리지에 다녀왔다. 주관하는 요리교실은 풍부한 노하우를 집약한 독자적인 열혈 레슨 스타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학생 수는 800 명을 넘는다. 기업 대상 레시피 개발과 출장요리, 이유식 강좌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생각하지 않는 부엌》, 《더 이상 식단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No.20161123-009

제목: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저자: 가타카와 유코

페이지수: 168

장르: 아동 소설

출간일: 2016년 09월 15일



<내용소개>

중학교 1학년의 봄, 새롭고 낯선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동갑내기 세 아이입니다. '마키타 리코', '와타나베 아카리' 는 여자 아이 두 명과, '사가누마 카즈키' 는 남자아이 한 명입니다. 이들은 같은 단지에 사는 소꿉친구로 매일 붙어 다닙니다. 학급이 달라도 쉬는 시간마다 또는 학교 밖에서 함께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초등학교 때처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의 봄. 리코는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사립 여자중학교에 입학합니다. 합격 사실에 기쁘면서도 대부분 지역 공립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싫고 아쉬웠던 것이 솔직한 속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중학교에서 또 다른 친구들을 사귀며 잘 적응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 속에서 거리감과 격차를 느끼고 생각처럼 친해지지 못합니다. 카즈키는 예전에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축구를 매우 좋아합니다. 항상 공을 들고 다니며 오직 축구만 생각하던 소년입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축구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자신의 한계를 체감하고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여성스럽고 내향적인 면이 있는 아카리는 카즈키와 같은 공립 중학교에 다닙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미소녀 타입의 친구도 새로 사귀니다. 둘이 같이 다니며 축구부를 응원하던 중 한 선배를 좋아하게 되며 아카리의 생애 첫 사랑이 시작됩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된다는 것은 아이에게 큰 변화입니다. 생활 환경이 변하는 것뿐 아니라,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우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자기자신에 대해 고민하며 이성에 대한 낯선 감정을 겪기도 합니다. 리코와 아카리, 카즈키는 누군가에게 고민이나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주며 헤쳐나갔었지만, 중학생이 된 후로는 각자에게 생긴 어려움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하고 힘들어하지만 성공과 실패,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기가 위치할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책은 2014년에 중고생 대상 신문에 연재되며 호평 받았던 글을 정리해 펴낸 것입니다. 부모

나 친구들과의 단단한 유대관계에서 조금씩 독립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장이며,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저자소개>

가타카와 유코

아자부대학 대학원 수의학연구과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다. 15 세에 쓴 〈사토 씨〉로 제 44 회 고단샤 아동문학 신인상 가작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작품으로는 《조나 씨》, 《내일 아침, 관람차에서》, 〈동물학과 가라데부 1 학년 다카다 도모〉시리즈 등이 있다.

No.20161123-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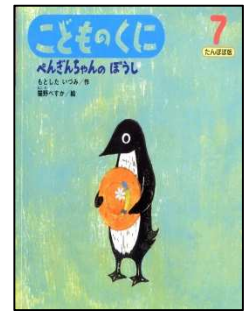
제목: 펭귄의 모자

저자: 모토시타 이즈미(글), 네코노 페스카(그림)

페이지수: 24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1년 07월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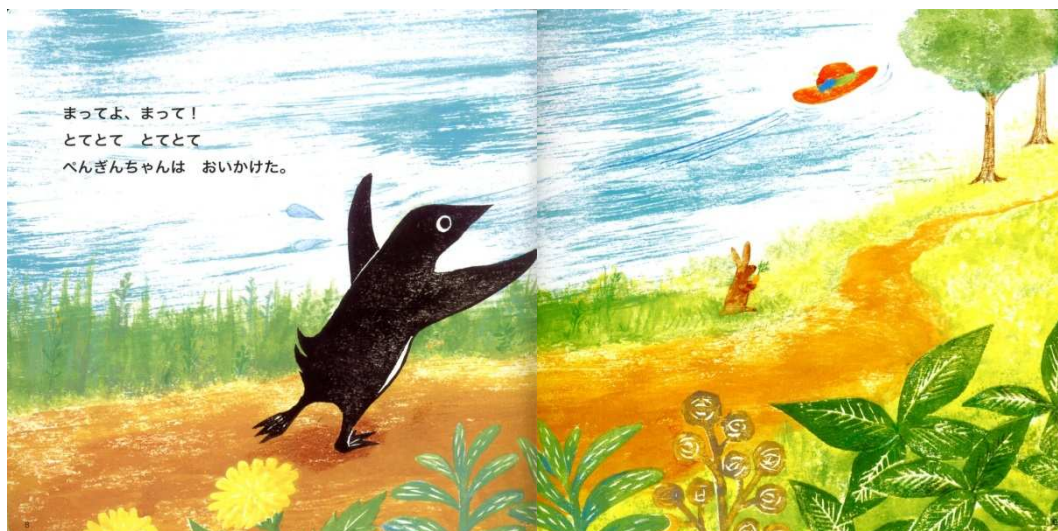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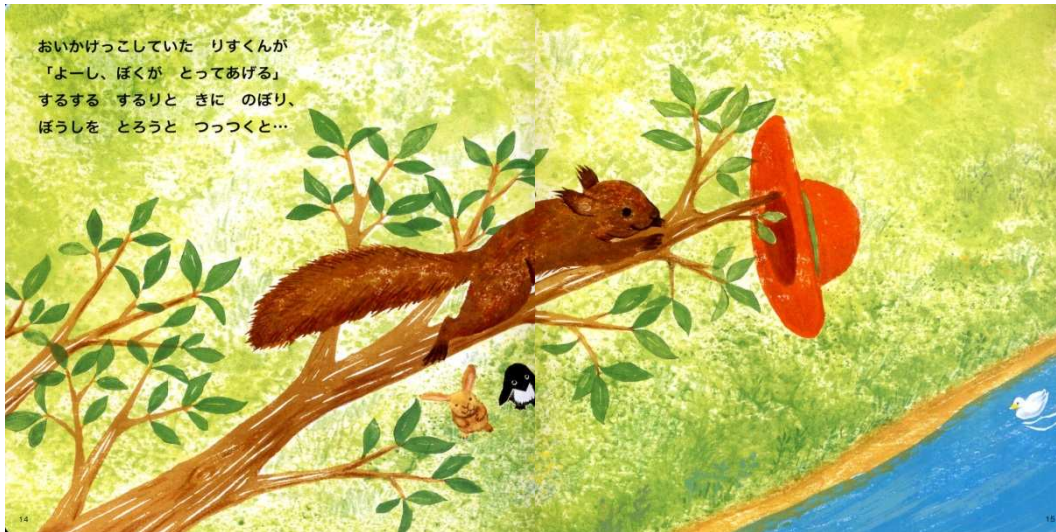
모자를 쓴 펭귄의 산책 길에서 벌어진 돌발상황을 그려낸 그림책입니다.

펭귄은 좋아하는 모자를 쓰고 즐거운 걸음으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횡- 하고 세계 불어온 바람에 모자가 하늘로 날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 멈추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황급히 따라가지만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멀리 날아갈 뿐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토끼가 먹고 있던 당근도 내팽개치고 펭귄을 도와주겠다며 달려갑니다. 모자는 불행히도 높다 높은 나뭇가지 끝에 걸립니다. 이번에는 주위에 있던 다람쥐가 나섰습니다. 날래고 가벼운 몸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 모자를 집으려 했는데, 모자는 나무에서 떨어져 이번엔 강물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마침 건너 편에 있던 오리가 도와주겠다며 물살을 따라 멀어져 가는 모자를 바짝 쫓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리의 노란 부리에 모자가 걸려들었습니다. 펭귄은 소중한 모자를 무사히 되찾습니다. 토끼와 다람쥐, 오리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판화 풍의 컬러 일러스트가 소소하고 귀여운 이야기와 잘 어울립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펭귄을 도와주려고 기꺼이 나서고 행복해하는 동물 친구들을 보며, 아이들은 타인을 위해 나서는 용기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모토시타 이즈미(글)

작가 겸 번역가. 《내리기 시작했어요》로 제13회 일본 그림책 상 등을 받았으며 《엄마가 오는 길》, 《고백할 거야!》, 《나의 괴물》, 《생일 케이크》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네코노 페스카(그림)

판화가. 2004년부터 판화 제작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이후 매년 개인전에서 작품을 발표하며 그림책과 삽화 장정 등도 담당하고 있다. 《처음 만드는 고무지우개 스탬프》, 《봄이 준 손수건》, 《야채의 신》 등이 있다.